**엄마! 여보! 안대리!**

소속 : OAL 사업부

이름 : 안 지 연

저는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사실, 아이는 둘이지만 남들이 흔히 말하는 남편이 첫째 아들입니다.

육아 및 가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남편.

그런 남편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어코리아에 입사해 현재까지 10년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사랑스런 두 아이도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고서 1년 3개월의 휴직을 마치고 복귀가 다가왔을 때, 가족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 시어머니께 첫째를 맡기고 직장에 나왔습니다.

사실, 공항이란 곳은 일반 직장에 비해 저처럼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곳입니다.그래서 일반 직장을 다니는 남편은 제가 쉬지 못하는 공휴일에 저를 대신해 첫째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육아에 서툰 상남자 남편은 아이가 울면 조금 달래다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아이가 심한 기저귀 발진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도 집안 걱정에 시간이 어찌 가는지, 퇴근할 때 쯤은 항상 신데렐라가 되어 버스에서 내리면 뛰어가기 바빴습니다.

가끔 항공기가 지연이라도 되면, 아이 때문에 연장을 하지 못해 직장동료들에게도 미안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둘째를 갖게 되었고 출산을 위해 다신 한번 1년 3개월이라는 휴식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 또 한번 결정의 시간.

복직 날짜가 한 달 이후로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초조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주변인들은 모두 “아이가 둘인데, 직장은 못 다니겠다. 그치? “

저 또한, ‘이제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구나’ 하며, 마음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직장생활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침 그 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저보다 5개월 먼저 복직한 회사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시간선택제 근로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간선택제 근로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시점이라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이 되어 시간제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앗 이거다! 나에게 딱 맞는 근무다!’ 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상의 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얘기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제도가 생겨 마음의 짐을 던 거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복직을 한지 5개월이 되어갑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원더 우먼, 수퍼 우먼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작은 부탁에도 하는 둥 마는 둥 소극적이던 남편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첫째는 내 담당이라며,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놀이를 하다 아이를 재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과 함께 아이들 챙기랴 바쁜 저에게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며 제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퇴근할 때 항상 사옵니다.

저 또한, 오후 3시에 퇴근해 아이들과 아파트 공원에서 신나게 놀기도 하고, 공룡을 좋아하는 첫째 덕에 관심도 없던 공룡 이름도 많이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많은 배려로 주말엔 쉴 수 있게 되어, 저희 첫째는 ‘주말은 가족과 함께 신나게 노는 날’ 이라며,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더불어, 일을 하면서 들어온 제 수입은 생활비로, 남편의 월급은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장난감 잘 사 주고 잘 놀아주는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안지연대리라는 이름으로 강한 존재감을 부여해 주신 에어코리아에 감사 드립니다.